

『三國志』·『三國史記』의 「州胡」·「耽羅國」研究

진영일(秦榮一)*

목 차

머리말

1. 州胡는 과연 濟州島이었는가
2. 中韓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는가
3. 州胡人은 어디와 더불어 무역했을까
4. 州胡人은 소와 돼지를 길렀다
5. 耽羅國이 百濟에게 方物을 바쳤다.

맺음말

머리말

탐라국의 형성과 내용은 과연 어떠했는지, 곧 이 지역 역사의 始原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여기서 그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출발점에 대한 앞의 욕구가 되므로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¹⁾ 필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古代耽羅의 交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제주 고대사에 대한 논고들은 그리 많지 않다. 우선 1980년대 발표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신문과 잡지 발표문 제외). 高昌錫, 「史實로 본 南方文化의 유입」, 『제주도』 83, 1987; 朴用厚, 「耽羅 部族國家의 成立」, 『濟州島研究』 3, 1986; 全京秀,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 1987; 森公章, 「耽羅方勝考: 8世紀, 日本と耽羅の通交」, 『續日本紀研究』 239, 1985; 森公章, 「古代耽羅의 歷史と日本: 7世紀後半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118, 1986; 文暉鉉, 「耽羅國 星主·王子考」, 『용암 차문섭 박사 화갑기념 史學論叢』, 1989; 寬敏生, 「耽羅王權と日本」, 『續日本紀研究』 262, 1989. 1990 연대의 발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朴元室, 「耽羅國의 形成-發展過程 研究」,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3; 진영일(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濟州島史研究』 3, 1994. 고고학 분야이면서도 제주 고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서로서 李清圭, 『濟州島 考古

易과 '國' 形成考²⁾라는 졸고(拙稿) 한편을 발표하여 그 주제에 대답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필자는 고대탐라국의 형성요소로서 고대 탐라의 수출품에 주의하여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곧 고대 무역이란 사회적 관계의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는 국가 또는 공동체 간의 무역을 관리하는 지역 지배계층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것은 탐라국은 원시적인 평등사회에서 벗어나, 이미 한 단계 발전된 계층화 사회에 진입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때(대략 기원후 5세기 후반-10세기) 탐라국은 사회-정치-문화 등의 여러 분야들을 관리-조직을 담당하는 지역 지배층이 존재하는 首長 사회의 단계에 도달하여 있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특히 5세기 후반에 탐라국은 백제에 朝貢하여 『三國史記』에 그 이름을 남기고있었다. 이것은 탐라국이 그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朝貢制度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그것을 통하여 백제, 고구려, 신라, 그리고 중국 唐과 외교관계에 맺을 수 있었던 하나의 '國'으로서 그 이름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있었다. 그 국제적 위상의 수준은 해외 9 종족들에 대한 주술적 방어를 위해 축조된 新羅 皇龍寺九層塔에서 네 번째 탁라(托羅)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백제, 일본 사절들과 나란히 唐 高宗의 수행 사절로서 太山에 동행해서 天祭를 행하는 것은 탐라국의 국제적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탐라국은 5세기 후반부터 12세기 후반, 고려 의종(毅宗: 재위 1146-1170) 때, 중앙에서 外官이 파견되어오기까지 외국에 使者들 파견 가능한 독립-자치적인 「國」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들이 대강 고대탐라국에 관한 졸고의 내용이었다.

위와 같은 논문(1994년)이 발표된 지 벌써 6년이 지나고 지금 세계는 새로운 2 千年期를 맞아 갖가지 행사들로서 떠들썩하다. 그러나 이 기나

學 研究:(學研文化社, 1995)가 있다.

2) 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濟州島史硏究會 편집, 『濟州島史硏究』 제 3집, 1994, 9-40쪽). 이 논문은 후에 제주도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에서 제주도 관련 논문들과 함께 『탐라사 연구자료집1』 역사1(이후 『탐라사 연구자료집1』로 약칭)에 再收錄 되었다. 김필중 인용 편의상, 본고에서 이 논문 페이지[쪽] 메김은 『탐라사 연구자료집1』에 의거하겠다.

긴 6년 동안, 줄고에 대해 반박하는 글이라든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고 있어 논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궁지에 빠져있다. 이것은 내 논문이 우수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제주도에는 고대사 연구인력(고고학이 아닌 문헌 연구자)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지역적·환경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탐라고대에 관하여 대해 평소 의문점, 미흡한 점들, 그리고 과대 평가된 점들을 스스로 반성하여 생각해 본 바를 스스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본고의 언급 시기는 제주시 용담동 철제 유물들을 기점(기원 1-2세기 추정)으로 하여, 10세기 후반 경에 편찬된 『唐會要』 시기까지를 하한으로 삼겠다. 이것은 언급 대상의 유물들이라든지 문헌의 유무에 의한 편의상 시대 설정이며, 시대구분 운운할 정도의 사회-경제 구성적 이유가 있어서 정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선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이후에 본고에서 이 책을 『三國志』 또는 『삼국지』라고 부름) 소재의 「州胡」에 관하여 논의를 하겠다. 곧 주호의 제주도 소재 여부에 관한 견해들을 비교하여 그 위치를 비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주호의 사회-경제-기술적 수준과 상황을 다른 지역의 문명형성 이론들을 참조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주호와 밀접하게 관계된 「中韓」의 위치가 한반도 어느 지역에 비정 가능한 지도 살펴보겠다.

줄고(1994)에서 무역이 국가형성의 계기가 되는 계층제도 확립과 해외관계 설정에 결정적인 관건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무역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단지 제한된 종류의 威信財(prestige goods)에 불과한 유물들과 朝貢의 문헌상 기록들이 과연 현대적 또는 현대적 의미에서 「貿易」이라고 할 수 있을지를 그 개념에서 한번 더 고찰해 보겠다. 이런 작업가설에 대한 검토-비판이 선행되어야 탐라고대 관한 보다 세련된 설명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줄고에 대한 근래 필자의 반성이었다. 곧 그것은 현대적 경제용어를 검토 없이 탐라고대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각성에서 비롯된다. 고대 탐라국의 교역품들의 성격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것들이 과연 어떤 사회적 기능이 있었는지를 고찰하겠다. 또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선박과 항해 능력을 가졌는가를 이해하여, 고대사회에서 바다(海)와

항해가 인간-물자이동에서 陸路보다도 오히려 지배적인 수단이었음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한다.

저번 글은 고대탐라국이 동아시아란 大廣域 무대에서 「무역」을 통하여 재부 축적을 하여 海洋王國의 기틀을 쌓아올렸던 '王國'이란 인상을 주었다면, 이번 본고는 이런 논의가 거품과 같은 것이었으며, 그리고 이 거품을 터뜨리는 것이 고대 제주도의 제 모습을 찾으려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작업은 고대제주를 과소평가 한다든지 그것을 깎아 내리려는 의도에서 하는 일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역사 연구자는 자기의 모든 물질적-비물질적 可用資源을 가지고 한 연구 주제를 가능한 객관적 관점이나 이론들로써 연구-파악해야지, 자기 지역의 자랑 또는 자기 이해 관계에 의해서 역사적 주제를 연구한다면 그는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서 이미 역사 연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만다. 이것은 세계사가 실현되는 지방사에서 지방이해에 구속되어 그 상위 프로그램인 인간의 세계적 보편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사 연구를 통하여 그것에 내재된 인간적 보편성과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제주도란 협소한 지역과 세계와의 연결 고리가 될 것이다.³⁾ 다시 말하자면 한 지방적 인간이 격변하는 주위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세계적 변수들과 자기 지역의 생존 변수들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설정-통제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여하가 항상 장래에 그 지역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사일수록 지방적 편견이나 이해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론들을 이해-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두 줄밖에 안 되는 사료들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백제, 해양에 관한 논문들을 너무 선별함이 없이 마구 인용하고 건강부

3)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1994. p.172 and p.177. 세계가 상호의존과 상호영향이 심화되어 가는 현대를 살아가기 위한 행동지침으로서 '지방적으로 행동하고 세계적으로 생각하라(Acting locally and thinking globally)'라고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지구대적이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고하기가 한 지역(locality)을 살리기 위해 점차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지역성이 세계적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지역을 이분하여 어느 한편을 강조하는 二元主義는 허구성을 띠게 된다. 모든 지방적 문제는 세계적 시각에서만 그 해결 가능성이 있게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사일수록 지방 사랑과 자랑 차원을 넘어서 그 역사에 대해 세계적 관점에 선 객관적 평가와 거기서 획득되는 세계적 보편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한 점이 많다는 것은 필자 자신부터 잘 아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매우 빈약하고 단편적 史料를 가지고 이 글을 엮어가자니 바로 잡종처럼 여러 분야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론들이나 해석들을 여기저기에서 따와서 글을 채워놓을 수밖에 없는데서 많은 무리한 연상작용과 해석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것도 제주고대를 조금이나마 밝혀보려는 필자의 노력에서 연유된 점을 독자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빌면서 글을 시작하겠다.

1. 州胡는 과연 濟州島이었는가

濟州島는 州胡라 하여 진수(陳壽)가 기원후 280 年代⁴⁾에 편찬 내지 저술한 중국 史書인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말미에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州胡가 있는데 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이다(丁謙은 州胡가 지금의 제주도가 틀림없다고 한다). 거기 사람들은 키가 작고, 그 언어는 韓과 같지 않으며, 그 모양은 鮮卑와 같이 삭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옷을 가죽으로 해 입으며, 또한 소와 돼지를 잘 기른다. 그런데 그 옷차림은 上衣만 있고 下衣가 없는 것 같아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中韓과 왕래하면서 장사를 한다(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如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草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賣中韓)⁵⁾.

이 사료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州胡'가 과연 濟州島를 지칭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병도(李丙燾)는 한반도에서 온 本土인과 구별하여 州胡人을 南洋方面의 인종, 특히 倭人의 漂流者 내지 포로집단을 두고 말한 것이라 한다. 그 증거로 '髡頭'라고 표현된 그들의 형상은 外人의 불법 침입자이거나 俘虜 등을 삭발(削髮)하여 노예처럼 부리는

4)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의 研究』(一潮閣, 1982). 이 연구에 의하면 『魏略』과 『三國志』는 다 같이 진(晉)의 太康年間(A.D. 280-289)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62 쪽). 또한 三國志는 어환(魚豢)의 魏略을 근거로 한 것으로 原記事를 그대로 轉寫한 것이 아니며 다소간에 생략과 보충이 있는 편찬(編纂) 기사라고 생각된다(83 쪽).

5)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여기서 '中韓'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後漢書』 東夷傳 三韓條에서는 '韓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東方法俗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⁶⁾

白鳥庫吉은 주호인의 두발 형태, 가죽옷 착용, 그리고 목축생활이 鮮卑族이나 烏桓族과 같다. 따라서 그들은 해상이동을 하고 제주도에 거주하였다고 한다.⁷⁾

리지린은 州胡가 소와 돼지를 잘 쳤다는 것으로 보면 왜(倭) 계통은 아니고 북방계통 종족임을 추단할 수가 있고, 따라서 마한 서해의 큰 섬을 제주도로 볼 것이 아니라 묘도(廟島) 列島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⁸⁾

이처럼 리지린을 제외한 학자들은 그 종족 여하는 불문하고 州胡를 일단 濟州島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리지린의 廟島列島⁹⁾가 주호를 지칭하였다는 의견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지린의 견해를 반박하고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는 삭발한 주호인이 소와 돼지를 잘 쳤기 때문에 왜 계통은 아니고 북방계통 종족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주호의 '好養牛及猪'하다는 조목을 목축 풍습이라 보고, 이 때문에 해양문화가 아니고 북방계통의 문화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주호를 북방 유목종족에 근접한 발해만 해상에 있는 묘도 열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대단한 억측이다. 소와 돼지를 잘 치는 것은 신석기 농업혁명 이래 북방사회, 남방사회를 가릴 것 없이 생계경제의 중요 부분으로 대부분 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사가 된다. 이미 이에 관하여 줄고(拙稿)¹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리지린이 주호가 목축-생활

6) 이병도, 「三韓時代研究-附 州胡考」(博英社, 『韓國古代史研究』, 1976): 「탐라사 연구자료집1, 107-110쪽에 재수록, 107쪽.

7) 朴元室, 「耽羅國의 形成·發展科程 研究」(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3), 7-9쪽에서 재인용. 여기서 박원실은 선비족이나 오환족이 제주도에 거주하였다면 그들의 유물이나 풍습 등이 잔존하고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 민간전승, 그리고 민속 등에는 선비족 내지 오환족 거주 흔적이 없다. 따라서 주호인을 선비족 또는 오환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8) 리지린, 「고조선 연구」(열사잡, 1989), 286쪽.

9) 廟山群島가 지금 중국에서 정식 명칭이다. 中國 華北 山東省, 山東半島 北部에서 渤海에 연이어 點在한 여러 섬들이다. 그 列島는 발해와 黃海를 구별하는 위치, 곧 山東半島와 遼東半島 中間에 연이어 있기 때문에 고대부터 항해상의 要地였다(『世界地名大事典』 8, 朝倉書店, ミャオシャ條, 1984), 1301-1302쪽.

10)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의 形成考」(『濟州島史研究』3 1994, 「탐라사연구 자료집1」 재수록. 이후 이 논문을 인용할 때는 「탐라사연구 자료집1」

풍습이 오환족-선비족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하여 그 위치를 비정한 것은 전형적인 文化傳播論의 입장에 선 발상이다. 그러나 문화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보는 文化適應說의 입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곧 만일 주호가 동물 사육하는 생계경제를 가졌다면,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풍습을 가졌을 테고, 바로 그것은 바로 선비족이나 오환족하고도 매우 비슷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¹¹⁾ 또한 리지린이 주호를 묘도 열도로 정한 것은 고조선의 위치 比定과 관련된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는 고조선 도읍을 遼東半島의 蓋平 근처로 보는 북한 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고조선의 요동 所在說을 주장하였던 것이다¹²⁾. 이런 고조선의 위치에 의하면, 마한은 요동 근처에 있어야 되고, 『삼국지』 韓條 끝에 나오는 주호는 발해만 海上에 위치해야만 된다. 결국 이런 추측은 주호 자체에 관한 역사적 탐색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고조선의 요동 소재설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나온 부수적 역측에 불과하였다.

결국 주호의 소재지 문제는 결국 마한이 어디에 위치하였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한 위치를 경기도 남쪽이거나 충청도 금강유역으로 비정하는 것이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이다¹³⁾. 따라서 주호는 마한 근처, 곧 한반도 서해안, 또는 서남쪽 해상에 소재한 大島가 틀림이 없다. 결국 한국 남해안의 視認距離(항해자가 눈으로 항해 목적 도서를 볼 수 있는 거리) 내에 있고, '中韓'과 장사를 하면서 당시 중국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大島'란 제주도 밖에는 없었다고 추측된다. 물론 한반도 남서부 해안에는 무수한 섬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고대 중국인들이 역사서에 수차에 걸쳐서 기록할 만

에 의하여 그 쪽수를 말하겠다). 349-350쪽.

- 11) 필자는 두발 형식, 의복 등이 막연하게 비슷하다고 해서 두 종족이 동일하다는 논의를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사한 생업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활양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는 양 종족 사이에서 교역 등을 통하여 상호 전파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학습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 연구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全京秀, 『韓國民族文化의 起源研究에 대한 方法論的 批判的 檢討』(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史論』 14, 1986, 73-100쪽)이란 논문이 참조된다.
- 12) 徐榮洙,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이기백 편집, 『韓國史 市民講座』 제2집, 일조각, 1988), 31-32쪽.
- 13)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古代篇)(一潮閣, 1985), 138-139쪽.

큼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주호가 『삼국지』에서 西海中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마한 기준으로 보면, 한반도 남해안 연안에서 상당히 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¹⁴⁾ 또한 제주도는 전남 해남반도에서 약 85 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거기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 안에 있었다. 그것은 마한의 西海나 南海를 가리지 않고 그 주위에서는 가장 큰 섬이었고, 그리고 한반도 주위 해안 지역에서는 중국상인의 무역 대상¹⁵⁾이 될만한 경제-문화적 自己像(identity)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던 유일한 大島이었다고 하겠다. 이 섬을 중국상인들이 州胡라고 불렀으며, 이것이 중국 역사가의 주의를 끌어서 『삼국지』에 그 소재와 명칭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한다.

2. 中韓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는가

상기한 『三國志』 魏書 東夷傳 州胡 기사에서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조목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中韓과 장사하였다(乘船往來 市賈中韓)'하는 구절의 '中韓'이란 지역이다. 이 부분이 『後漢書』 東夷傳에는 '韓中'(市賈韓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두 사료들의 선후나 正誤를 구별하지 않고서, '中韓'이나 '韓中'이거나 같은 의미로서 생각하여 그저 기준 없이 적당하게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中韓'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韓中'을 선호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두 가지 사료들을 분별하여 정확한 쪽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全海宗 교수는 『後漢書』와 『三國

14) 史書에서 어떤 지방이 위치한 방위는 종종 부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 실례로서 『三國史記』 卷34 地理1 尙州條를 보면, 九州를 설명하면서 尙州가 王城 동북쪽으로 唐恩浦 向路에 해당하는 곳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尙州는 王城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本國界內置三州 王城東北當唐恩浦路曰尙州). 필자는 하나의 사례를 생각나는 대로 들었는데, 역사서를 읽다보면 이런 지리상 착오가 드문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술한 州胡의 방향이 그리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15) 진영일, 같은 논문(1994), 341-344쪽. 그리고 視認距離에 의한 연안항해에 관하여도 같은 논문, 339-340쪽에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청규(李淸圭), 『濟州島 考古學 研究』(學研文化社, 1995), 40-53쪽에 걸쳐서 視認距離라든지 潮流, 바람, 그리고 항해에 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런 말상들은 鄭鎮述, 『韓國先史時代 海上移動에 관한 研究』(濟州島史研究會 편, 『濟州島史研究』 제2집, 1992)이란 혁신적인 논문에서 출발했다고 생각된다.

志』의 東夷傳 기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우선 『三國志』 동이전 기사는 중국 三國時代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三國 前代에 관한 역사 서술도 눈에 띈다고 한다.¹⁶⁾ 또한 『後漢書』 東夷傳¹⁷⁾의 本文記事는 『三國志』 기사를 전사(轉寫)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중 1/3 정도가 『魏略』 기사에서 온 것이다¹⁸⁾. 그리고 兩書를 비교해 보면, 특히 『韓傳』의 경우에는 『後漢書』가 착오, 개찬(改竄)한 정도가 심해서 사료가치가 없다고 한다¹⁹⁾. 『三國志』가 오히려 原史料이거나 그것에 가까운 史書라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역사 시기 순서가 『後漢書』의 漢이 三國의 魏보다 앞섰다고 해서 그대로 『後漢書』 기사를 우선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 반대로 『三國志』의 사료들이 더욱 일차적이어서 그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三國志』의 '中韓'을 『後漢書』의 '韓中'이 잘못 표기된 정도로 여길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제주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삼국지』의 사료들의 성격에 대한 일차적 이해 없이 '中韓'을 『後漢書』의 '韓中'으로 대체한다든지 전자를 후자의 착오라고 여기는 것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삼국지』를 따라 '中韓'을 하나의 고유한 지역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여겨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주호가 '乘船往來 市賈中韓'했다는 구절에서 '市賈'(시교: 장사, 교역) 대상지역, 곧 '中韓'지역이 한반도 어느 지역을 지칭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당시 제주도의 교역 대상지역과 문화교류의 일차적인 지역을 확인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全京秀 교수는 이 中韓이 三韓 중, 구야국(狗邪國)이 중심이 되는 변한(弁韓) 지역이라고 추정하고 있다²⁰⁾. 첫째, 그 근거로서 구야국은 변한의 중심지로서 옛날부터 馬韓-辰韓-倭 등과 더불어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특히 馬山 城山 貝塚와 金海 回峴里 패총에서 출토된 古錢들이 제주도 山地港에서 출

16)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의 研究』(일조각, 1982), 53쪽.

17) 앞 책, 48쪽. 『後漢書』는 그 수찬(修撰)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지 범엽(范曄, 398-445)의 晩年 저술이라고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후한서』는 280년대의 저작인 『三國志』보다도 150년 정도의 후대 史書이다.

18) 앞 책, 51쪽.

19) 앞 책, 61-63쪽.

20) 全京秀,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濟州學會 편, 『濟州島研究』 4, 1987, 『탐라사 연구자료집1』 제수록, 166-168쪽)에서 中韓이 구야국을 포함하는 변한을 지칭했다는 이유들을 자세하게 들고 있다.

토된 古錢들과 같은 종류이다. 둘째, 漢江 유역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복합식 공렬토기는 전라도 지방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고, 경남 해안지방과 제주도에서 출토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아서, 경남과 제주도란 두 지역 간에 모종의 교역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적어도 中韓이 마한 지역을 지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방증이 된다. 셋째, 고구려 문자왕(文咨王) 13년(서기 504)에 섭라(涉羅: 耽羅)가 고구려와 직접 '珂'²¹⁾을 조공했다는 기사가 있다²²⁾. 이런 기록은 고구려와 탐라 사이에 전통적인 무역 관계와 무역로가 장기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이 기사는 당시 백제와 탐라가 불화 하였으며, 이것은 후에 백제 東城王이 탐라를 정벌하려고 시도를 하게된 원인이 되었다²³⁾. 넷째, 馬韓과 中韓이 동일 문장 내에서 언급되어서 양자를 구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한다.

필자는 위와 같은 전경수 교수가 지적하는 주호의 교역 대상지방이 변한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 반대이유들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첫째, 『三國志』 저자는 마한, 진한, 그리고 변한에 대하여 그 지역의 위치, 풍습, 생산물 등의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中韓과 삼한을 서로 별개의 존재로 파악하여 '中韓'이라는 지명을 들지 않았나 한다. 그러므로 中韓과 三韓은 다른 곳에 존재하였으며, 또 그 역사적 배경이 각각 다른 독자적인 역사적 실체들이었다고 하겠다.²⁴⁾

21) 소라, 조개 등으로써 제작된 말 재갈 장식품이며 중국에서 고관들의 행차하는 말을 장식하는 귀중품이었다(진영일, 같은 논문), 28-29쪽.

22)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어 조공하니, 위 나라의 世宗이 東堂에서 고구려 사신 靑丘를 인견 하였다. 사신 靑丘가 말하기를 "小國이 帝國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 대를 걸쳐 충성을 다하여 토산물로 일찍이 조공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황금은 부여에서 나고 珂는 섭라(涉羅)의 소사인데 앞서 부여는 물길에게 쫓겨나고 섭라는 백제에 병합되었습니다. 두 물건을 조정에 올리지 못하는 실로 두 도적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其使靑丘於東堂 靑丘進曰 小國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即涉羅所產 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誠是爲(高句麗本紀 文咨王 13년 夏4월, 서기 504년).

23)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耽羅國即耽羅(百濟本紀, 東城王 20년, 8월, 498년).

24)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三國志』 魏書 東夷傳).

둘째, 州胡에 관한 기사가 馬韓의 말미, 즉 마한의 풍습에 관하여 서술된 부분의 끝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진한, 변한의 기사가 정연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주호 자체에 대한 역사적 기술보다는 마한의 풍습들을 설명하다가 그것과는 다른 풍습이 州胡라 부르는 大島에는 행해지고 있었다는 듯이 서술되어 있다²⁵⁾. 이것도 비록 주호가 '韓'과 더불어 언어, 인종과 풍속은 매우 다르지만, 지역적 거리로써는 매우 가까운 데 소재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셋째, 항해와 선박이 매우 미숙한 고대세계에서 州胡인들이 비교적 至近한 거리에 있는 마한과 전남 해안지역을 두고서(제주시를 기점, 100km 반경 이내), 거의 3배나 더 먼 거리에 있는 변한지역(제주시 기점 300km 이상)을 빈번한 왕래 지역으로 삼았겠느냐는 상식적인 의문이 떠오른다. 물론 주호인이 전남 해안 가의 한 지점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남해연안을 따라가면서 항해를 하여 경남 연해지점들과도 교역을 할 수는 있지만, 변한 연해지역이 제일차적 상륙지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넷째, 역사적으로 보아도 항상 제주도와 백제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백제 근초고왕은 동왕 24년(369)에 낙동강 유역의 이른바 加羅 7국을 제압하여 지배권을 장악하고, 다시 서쪽으로 우회하여 古奚津(康津)에 이르러 침모다례(仇彌多禮)²⁶⁾을 정벌하였다 한다. 그것도 신속하게 큰 지역적 방해 없이 근초고왕의 정복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역사기록에서도 보이듯이 마한과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서로 분리가 안된 한 연속체처럼 다루어지고 있다.²⁷⁾

25) 州胡 바로 위에는 마한의 생산물(大粟, 細尾雞), 男子文身에 관하여 적혀있고, 그 위에 유명한 '蘇塗'에 관한 기사가 실려있다. 따라서 주호에 대한 언급은 마한 풍습의 일부를 덧붙여서 기술한 감을 준다.

26) 金泰植, 「百濟의 伽倻地域 關係史: 交渉과 征服」(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편, 『百濟의 中央과 地方』(百濟研究論叢 제5집), 世宗文化社, 1997), 50쪽, 주)27과 주)28에서 古奚津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康津으로 비정하였으나 의심스럽고, 또한 침모다례(仇彌多禮)를 濟州島로 比定하는 것은 무리라고 『日本書紀』역주본(岩波書店刊)에서 '도무다례'로 訓을 단 것에 있다면 지금의 강진군 병영면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7) 李基東, 『百濟史研究』(일조각, 1996), 119쪽. 이 사실은 『日本書紀』神功紀 攝政 46년-55년 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李道學, 「百濟의 起源과 國家形成에 관한 계검토」(한국고대사 연구회 편,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상술한 기록들은 바로 中韓의 소재와 정체성과 관련이 있게 된다. 그것은 전남지역에는 어떤 역사적 정치적 실체들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고대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곧 백제가 마한세력을 완전히 통합한 것은 4세기경이며 주호가 내륙과 통교하던 시절은 전남해안 지역은 여전히 마한 세력권이 온존하고 있었다²⁸⁾. 그리고 4세기 후반에 백제가 전남지역이나 경남지역에 진출한 것은 그들의 협조를 얻어 교역로를 개통하였다는 것이지, 무력정벌에 의한 직할 영토화를 하였거나 속국(屬國) 지배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하겠다. 그 이후에도 5세기 후반까지 이들 지역에는 백제문화와 구별되는 독자적 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²⁹⁾

이것은 또한 전남지방이 언제 백제에 편입하게 되었는가 하는 시기 문제와 관련이 된다. 문헌상에서는 이미 近肖古王 24년(369) 전남과 경남의 해안지역이 백제에 복속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고고학의 시각은 그 복속 시기를 좀더 후대로 내려 잡고 있다. 최성락 교수는 榮山江 특유의 묘제인 옹관묘(甕棺墓)가 기원후 3세기 후반~ 6세기 초까지도 이 지역에 축조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 백제문화의 영향이 실제로 전남지방에 나타난 것은 百濟系 石室墳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는 시기인 6세기 중반 이후이었다. 그리고 옹관고분(甕棺古墳)은 대체로 3세기 후반 경에 등장하여 4세기경에 유행하였고 5세기 말 내지 6세기 초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지방에는 이런 옹관묘 사회가 독자적으로 발전을 이루다가 석실분 단계를 전후하여 전남지방은 백제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었다고 한다.³⁰⁾ 이런 견해는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 것 같다. 이기동 교수도 5세기 후반 경에 익산·나주·영암 등지에서는 백제와는 이질적인 마한 고유의 토착적인 지역 특색을 가진 문화전통이 있었다고 한다.³¹⁾ 또 삼한 시대를 전공

민음사, 1990), 161쪽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28) 이기동, 앞 논문, 120쪽.

29) 김태식, 앞 논문, 51쪽.

30) 崔盛洛, 「全南地方에서 複合社會의 出現」(百濟文化開發研究院 편, 『百濟論叢』 제5집, 1996), 68-70쪽.

31) 이기동, 『百濟史研究』(일조각, 1996), 176쪽. 그는 백제가 마한 병합을 할 수 있었던 연대를 특정하여 웅진천도(熊津遷都: 475) 이후라고 한다(같은 책, 184쪽). 그전까지는 영산강 유역에서는 5세기 중엽까지 옹관묘가 유행하고 있었다(같은 책, 185쪽).

한 이현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곧 백제국의 팽창과 목지국 세력권의 해체는 여타의 마한지역 정치집단들을 자극하여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30여 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조직체를 새로이 출현시켰다. 이처럼 마한지역 여러 세력들 간의 역학관계가 재편되는 것은 240-280년대에 이르는 시기로 생각된다.³²⁾ 그리고 282년에 처음으로 중국 진(晉)에 遣使한 '東夷二十九國'들은 신미국(新彌國)을 대표하는 小國 연맹체이었다. 그들은 『삼국지』 馬韓條의 마한과는 다른 세력이며 289년 조의 '東夷絶遠 30餘國'과 동일한 존재로 생각된다. ... 그러므로 3세기 후반 마한 지역에는 20여 국을 구성단위로 하는 것과 30여 국을 기반으로 하는 최소한 두 개의 원거리 교역조직이 확인된다. 양 조직의 중심세력을 파악함에 있어 이 시기에 직접 해당되는 고고학 자료는 아주 제한적이다. 그런데 약간의 시차는 있으나 마한지역 내에서 4세기 대 이후의 高塚古墳이 집중 분포하는 대표적인 두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과 영산강유역이다. 이러한 후속 시기의 발전 추세로 미루어 전자의 구심체는 백제국이며, 후자는 新彌國을 대표로 하는 영산강 유역에 중심지를 둔 정치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³³⁾

필자는 이현혜 교수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그 당시의 주호와 중한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호인들이 교역하였다는 '中韓' 지역은 변한지역이 지칭한 것이 아니라, 영산강 유역 일대 신미국을 중심세력으로 하는 29개 나라들을 특정하여 '中韓'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역사시기의 관점에서 주호 기사가 등재된 『삼국지』의 저작 연대인 3세기 후반하고, 신미국의 연맹체제가 성립된 시기하고 대충 일치하고 있다는 데서도 한 방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도 그런 소국 연맹체 중에서 남해안 소재의 강진군 탐진강(耽津江) 유역 일대, 곧 해남, 강진, 그리고 장흥 등과 밀접하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교역하지 않았는가 한다. 물론 주호인은 이곳만을 유일하게 목적지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를 한반도 상륙-항해지점으로 삼고, 필요가 있으면 계속하여 남해 연안을 따라 경남 연해지역³⁴⁾-으

32) 이현혜, 「3세기 馬韓과 伯濟國」(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편, 『百濟의 中央과 地方』 제5집, 1997), 29쪽.

33) 이현혜, 같은 책, 27-28쪽.

34) 이청규, 「濟州島와 南海岸地方의 初期鐵器文化 交流」(제주도사연구회 편, 『濟州島

로 향해하면서 교역에 종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당시 주호는 후에 문자왕 13년(503) 전에 토산물 '珂'를 고구려에 직접 조공하고³⁵⁾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남해안 말고도 서해연안 항로를 개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수전(五銖錢)³⁶⁾이 제주도 山地港, 전남 巨門島, 마산 城山貝塚, 황해도 운성리·용청리·선봉리·흑교리 등, 북한 자강도 증강군 등지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 지역들은 중국과도 상당한 왕래와 교역이 있었다고 생각된다.³⁷⁾ 이런 교역은 삼한과 낙랑과의 조공무역과는 다른 하나의 교역형태이었다. 이런 교역은 중국상인들에 의한 공식적인 조공무역이 아닌 私貿易 형태였다고 추정된다. 樂浪郡(BC 108-AD 313) 시대에 중국 상인들의 교역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郡縣 지역 내에 국한되지 않고, 근현 지역을 넘어서 삼한지역까지 미쳤다고 생각된다. 삼한 각지에서 발견되는 五銖錢, 貨泉 등의 중국 화폐는 이들 상인의 교역활동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토된 중국 화폐가 발견된 지역의 공통점은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지라는 점이다.³⁸⁾ 그러나 필

史研究』 제6집, 1997), 14쪽. 제주도에서 가장 이른 발굴 실례로는 구좌읍 종달리 패총과 김녕리 유적에서 출토된 삼각편평 逆刺式 화살촉과 刀子片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제주도에 철기 유입은 한반도 남해안지방과 거의 비슷한 삼천포 늪도와 창원 다호리 묘의 이른 시기, 즉 기원전 1세기 경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제주도는 전남 해안지역 이외에 경남 해안지역과 교역관계가 밀접하였음이 시사되고 있다. 高橋公明, 「中世東亞細亞에서 海民과 交流: 濟州島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편, 『耽羅文化』 제8호, 1989), 119쪽. 조선시대 제주도민은 상당히 광역해역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인은 조선시대 초기에 처자를 동반하여 뱃집(家船)을 이용하여 수천 인이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에 출현하고 있었다. 1477년 경상도 泗川에는 200여 명이 부역을 피해도망해서 있었다고 한다. 상기한 기사들은 필자가 눈에 띄는 대로 적어놓은 것이어서 조직적으로 사료를 조사해보면 더 많은 사례들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고대 제주도인이 전남 강진 일대하고만 교역을 한 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가서는 경남 연해안, 서해 연안, 중국까지도 항해해 간 것 같다. 한 예: 耽浮羅(탐라), 流求, 毛人 등의 雜國이 중국에 물려들어와서 海中에서 교역을 하였다 한다(韓愈, 昌黎文, 送鄭尚書序).

35) 『삼국사기』 高句麗本紀, 文咨王 13년(504).

36) 전경수, 「상고탐라사회와 기본구조와 운동방향」(1987) 『탐라사 연구자료집1』 제수록, 165쪽. 五銖錢은 BC 118년부터 주조되어 사용되었던 화폐이며, 왕망(王莽) 新 나라 때 잠시 사용과 주조가 금지되었다가 後漢 이후 다시 주조되어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화폐이었다. 그러나 이청규는 그의 저서 『제주도 고고학 연구』(1995), 194-195쪽에서 제주도의 경우, 王莽錢과 함께 출토하기 때문에 그 연대가 기원후 1세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37) 전경수, 앞 논문, 165쪽.

자는 반드시 중국 상인들만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 이들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바로 주호도 中韓을 왕래하면서 교역을 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중국상인들도 제주도에 왔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료의 기록대로 주호인들도 中韓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건너다니면서 장사를 하지 않았는가 한다.

3. 州胡人은 어디까지 항해했을까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당시 주호를 포함하여 주위 국가-민족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항해능력을 갖고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 제주도에선 고대 선박 출토품 또는 그 단편 유물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백제,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항해 능력을 간단하게나마 조사하여, 고대탐라도 아마 그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선 백제 해상능력에 관하여 이도학 씨의 견해를 들어보자. 백제는 '방(肪)'이라고 표현되는 대형선박을 이용하였고, 또 488-490년 해전에서 북위(北魏) 선단을 격파할 정도로 비상한 해상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항해상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남양만에서 산동반도로 直航하거나 혹은 흑산도를 거쳐 강희(江淮) 지방으로 가는 항로를 취하였든지 하여 중국 남조 정권과 활발하게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같은 사실은 무녕왕릉과 그 부장품이 양 나라 문화의 영향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익산 입점리 고분에서 남조 계통의 청자가 출토된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 한편 백제는 498년 탐라를 복속시켜서, 일시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탐라와의 교역을 재개하였다. 그 결과 백제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貝類인 말 재갈 장식에 쓰였던 珂를 독점하게 되었으며, 또 탐라가 이용하던 남방항로도 장악하게 되었다

38) 李賢惠,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일조각, 1998), 272쪽. 이현혜 교수가 들고 있는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산지향: 五銖鏡·大泉·貨泉; 전남 海南 郡谷里貝塚; 오수전: 전남 무안의 오수전; 경남 마산 城山貝塚; 오수전: 경남 義昌郡 茶戶里; 오수전: 경남 김해 회현리패총; 왕망 대의 화친(같은 책 273쪽).

(여기에서는 문헌에 기재된 涉羅를 탐라로 받아들이는 견해를 일단 취한 것이다). 탐라는 後漢 때 이미 중국의 강남인 회계(會稽), 곧 越州 지역과의 항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백제는 이러한 제주도를 중심 기항지로 하여 남중국 항로의 남단인 대만해협에서부터 한국적 문화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오키나와(沖繩)을 통과하였던 것 같다.³⁹⁾

필자는 제주도가와 고구려에 '珂'를 조공하였고 이것은 양국 사이에 교역과 항로가 개척되고 있었음 보여주는 사례임을 앞 논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⁴⁰⁾ 그러나 탐라가 後漢 시기 강남 회계 지역과 항로를 개척하였는지 백제와 남중국 항로에서 중간 기항지가 되었다는 사실 등은 아직 필자가 그것을 증빙할 만한 문헌이나 고고학 유물들 보거나 듣지 못했다. 아마도 백제는 대형선박인 舫을 이용하여 直航海하여 중국 남조 정권들과 활발하게 외교를 벌일 수 있었을 테고, 하필이면 제주도까지 수백 km에 달하는 우회항로를 택하면서 강남항로 기점을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39) 李道學, 『새로 쓰는 백제사』(푸른역사, 1997), 371-372쪽.

40) 진영일, 「고대탐라의 교역과 '國' 형성고」, 1994(『탐라사 연구자료집1』, 356쪽). 여기서 '涉羅'가 과연 제주도를 지칭했는가 하는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이 산출지가 珂라는 朝貢品이 바다에서 나는 조개를 가공한 말 개갈 장식품이므로 우선 海上 大島를 일단 지칭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백제에 병합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國' 규모의 大島로서 백제에 병합 운운한 기록과 관계될 수 있는 역사적 실체는 耽羅國'말고는 없다(百濟 東川王이 탐라가 貢賦를 올리지 않아 정벌하려고 武珍州에 이르렀는데 탐라가 이를 듣고 사죄하자 그쳤다는 기록을 참조(『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20년 8월, 서기 498년). 또한 涉羅는 중국어로 '서루오'라고 발음되는데, '서'는 '섬'을 의미하며, 이때 받침 'ㅁ'은 순음으로 'ㅂ'과 서로 통용될 수도 있다. 역사적 상황으로 봐서 분명히 제주도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들로서 耽羅, 耽牟羅, 都羅, 度羅, 耽浮羅 등이 있는데, 이것을 보아서도 고대 제주도 명칭이 정확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백제나 중국에서 적당하게 표기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무리하게 글자의 일치를 따지기도는 그 지명이 나오는 역사적 상황이나 자료가 일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附記: 韓愈, 昌黎文에 보이는 耽浮羅라는 지명이다. 필자는 耽浮羅(딤플루오)는 바로 耽牟羅(딤머홀로)는 서로 비슷하게 발음되고 있다. 따라서 탐부라는 탐모라(濟州島)에 근거해서 제주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모(牟)'와 '부(浮)'도 서로 통용될 소리이다. '度羅'도 '島'라들 같은 음을 가진 '度'라고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고대 지명은 어떤 원칙과 내용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 들리는 음성(能記: Signifier)를 우선하여 적당하게 표기한 것 같다. 인간의 사유에서는 청각적인 能記가 항상 우선이며, 개념적인 所記(Signified)는 부차적이고 자의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있다(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45-46쪽에서 기호학자 소쉬르의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한 것 참조).

일본의 경우, 야요이(彌生) 시대인 3세기 경에는 構造線과 통나무배(丸木船)가 같이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일본 가사지마(笠嶋) 출토의 배가 구조선으로 추측되며, 대형선박이었다. 현대 우리는 고대 선박 규모를 너무 과소 평가하여 그렇게 큰배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나, 이 발굴로 인하여 이런 생각은 부정된다.⁴¹⁾ 그리고 일본의 前方後圓墳들이 해안에 위치하여 바다와 관계 있는 일, 즉 무역에 종사하던 항해표시로서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고분들이 농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바다의 문화, 교역을 배경으로 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하여튼 육지에서 古代史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다(海)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전환이 요구된다고 한다.⁴²⁾

중국의 경우, 廣州 유적에서 길이 30미터, 폭 6-8미터가 되는 木造船이 이미 건조되고 있었다. (221-200 BC). 그래서 기원후 2-3세기 경에는 대형 구조선(길이 20-21미터)이 건조되고 이용되어 원양항해가 가능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배들은 요동반도에서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황해를 도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³⁾

당시 주호가 해외를 왕래하던 시대에는 백제, 고구려⁴⁴⁾, 일본, 그리고 중국이 황해를 중간 기착하지 않고 직접 횡단 가능한 대형 선박들을 이미 갖추어 있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지적되고 있다.⁴⁵⁾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에 直航 가능한 항해능력⁴⁶⁾을 갖추고 있

41) 茂在寅男·安井良三, 「古代の船と海上の道」, 『東アジアの古代文化』 29, 1981), 3-5쪽.

42) 앞 책, 15-16쪽.

43) 앞 논문, 8쪽.

44) 윤명철(尹明喆), 「高句麗 前期의 海洋活動과 古代國家의 成長」, 『韓國上古史學報』 제18호, 1995). 內陸國家로 생각되던 고구려가 이외로 강력한 水軍을 소유하고 백제 격파하는 등 군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아울러 해양국가인 吳와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국의 해양능력을 발전시켜 남중국 해양까지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45) 다수의 논문들이 고대 선박과 항해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대형이었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國分直一, 「古代東海の海上交通と船」, 『東アジア古代文化』 29호, 秋1981); 佐佐木孝男, 「古墳時代初期の船と航海について」, (같은 책); 荒竹清光, 「古代環シナ海文化圈と對馬海流」, (같은 책).

46) 제주도 古代交易에 관해서는 앞서 머리말에서 말한 일반적 유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책이 매우 참조된다. Bronislaw Malinowski,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New York, E.P. Dutton & Co., Inc., 1961). 섬들 사이에 팔찌와 목걸이를 교환하는 교역체계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여 그 지역의 유기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83쪽). 전 부족생활은 항상 서로 물품을 주고받는 활동에

었다. 그렇다면, 자연히 중국, 한반도, 일본, 제주도, 오키나와, 그리고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內海가 되는 黃海를 서로 횡단하면서 교역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3세기 경, 州胡도 황해라는 해상 交易路를 왕래 항해하면서 中韓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고구려, 중국하고도 교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는 사실들을 줄고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진영일, 앞 논문, 363-364쪽).

4. 州胡人은 소와 돼지를 잘 길렀다

3세기 당시 주호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살펴보도록 하자. 『三國志』 기사는 주호를 두고 '소와 돼지를 잘 기른다(好養牛及猪)'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고학적 자료와도 잘 맞는다. 즉 괵지리(郭支里) 패총(郭支2式 土器 시기: 기원후 500-900)에서 사슴, 멧돼지, 말, 개과 동물, 고양이과 동물 등 3目 6種의 뼈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체 동물 뼈 중, 사슴이 36.4%, 멧돼지가 19.1%, 소가 19.5%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⁴⁷⁾ 주호인이 소와 돼지를 잘 사육하고 있었음은 당시 제주도가 단순한 수렵채집 경제시대를 어느 정도 벗어나 동물사육이라는 식량생산체계에 들어간 진보된 사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⁴⁸⁾ 문명 형성의 차원에서 보면, 소, 돼지, 그리고 개⁴⁹⁾는 고대세계의

의하여 운영된다. 이점에서도 재래 경제의 이론은 허구가 된다(166-167쪽); 땅 구멍이나 지하에서 조상이 출현하였다 한다. 최초의 출현자는 그 땅의 지배권을 주장한다(317쪽). 신화는 관습을 정착시키는 규범적인 힘이 된다. 주술은 신화세계와 현실적 실재를 연결시키는 고리, 매개수단이 된다(328-329쪽). 팔찌와 목걸이를 교환하는 Kula 교역은 그 소유자에게 사회적 명성과 영예를 부여하여 그를 더 높은 차원의 존재자가 된다고 한다(511-512쪽) 등, 교역, 신화, 주술, 사회적 위신 등, 이곳저곳에서 제주 古代의 영상을 더듬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명저라고 하겠다.

47)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학연문화사, 1995), 64쪽.

48) 찰스 레드만(Charles L. Redman) 지음·최몽룡 옮김, 『문명의 발생: 근동지방의 초기 농경민에서 도시사회까지』(민음사, 1995) 226-242쪽. 인류의 초기문명은 中近東(메소포타미아, 터키 일부, 이스라엘에 걸치는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정주촌락생활을 하면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정착생활은 동물사육과 농경을 통한 식량생산경제가 가능하게 된 데서 출발했다고 한다.

49) 야생 돼지는 잡식성이며 수렵시대를 좋아하지만 생태적인 범위는 매우 넓다. 다 자란 야생 돼지는 매우 난폭하지만 어린 돼지는 길들이기 쉽다. 이러한 특징으로 돼지는 널리 사육되었던 것이다. 돼지는 인간의 쓰레기나 폐기물을 먹도록 잘 자라며, 먹을 수 있는 많은 고기를 인간에게 제공한다. 기원전 7,000년 경 후반부터

탁월한 식량자원이었으며, 이런 동물들을 사육하여 가축화하는 일은 동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문명-문화의 단계를 마련하는 첫째가는 역사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요인 이외에 레드만 교수는 정착 생활 출발과 문명의 조건들로서 마제석기·토기 사용, 타지역과의 교역망과 원거리 상품, 죽은 자의 매장풍습, 그리고 금속제련 등을 들고 있다.⁵⁰⁾ 이런 문명 표준들에 비추어 주호 사회가 이런 문명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자. 우선 마제석기와 토기가 물론 이 주호시대 제주도에서 이용되고 있었다. 이청규 교수에 의하면, 주호 시기는 바로 광지1식의 회색토기(灰色陶器) 시기이었다. 그러나 회색토기는 기원전 1세기부터 보급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전시대부터 적갈색토기(赤葛色土器)가 대량 제작되어 광지1식 시대에도 계속하여 이용되고 있었다.⁵¹⁾ 이 점에서 주호는 레드만 교수가 지적하는 토기 사용이란 조건 하나가 충족시킬 수 있게된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런 토기들의 출토가 의미하는 바는 정주마을과 농경이란 생계경제가 이미 주호시기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비추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토기들은 농경과 정주촌락과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출현하기 때문이다.⁵²⁾

주호는 토기 형태상으로 기원전 1- 기원 5세기 동안 지속된 광지1식 토기시기에 속한다.⁵³⁾ 이 당시 도구유물로서 光令里에서 도끼, 자귀, 대패, 대형공이(마치 종류), 갈판과 갈들, 흙들, 그리고 들갈(수확용

사육되기 시작하여, 양, 염소와 함께 근동지방의 중요한 식량원이 되었을 것이다(앞 책, 233-234쪽). 소: 사육된 소는 기원전 6,000년 무렵 중근동에서 압도적인 식량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는 고기, 우유, 운송수단의 계공자로서 초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필수적인 존재였다(앞 책, 234-235쪽). 개: 각종 증거로 보아 개는 인간이 최초로 사육하기 시작한 동물이다. 기원전 7,000년경까지 여러 유적에서 개가 가축으로 사육되었다는 증거가 보이고 있다. 개가 가축으로 이용되었는지, 사냥용으로 이용되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227-228). 추기: 필자는 우리나라의 풍습을 보아서 제주도 주호시대에 개는 좋은 식량자원이었다고 단언한다.

50) 앞 책, 241-274쪽.

51) 이청규, 같은 책, 98-108쪽.

52) 찰스 레드만, 같은 책, 299-300쪽. 농경이 많은 지역에서 우세한 생존행위가 되면서 사육 동식물의 확보, 가공, 저장에 대한 기술과 도구의 발전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기원전 7,000 무렵에 잘 구워진 토기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방수가 되며 값싼 용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토기는 곧 근동 전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이전 시기보다 농산물의 수송과 저장을 더욱 쉽고 효과적이게 하였다.

53) 이청규, 같은 책, 106-107쪽.

도구) 등이 출토되었다. 이 도구들은 농경지 개간, 가재도구 제작, 가옥 건조, 수확, 곡물 제분용으로써 주호시기에 이미 적극적인 농경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유물들이다.⁵⁴⁾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토기들이란 농경과 정착촌락을 전제로 하는 곡물의 저장-조리하는 도구임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 주호인, 적어도 일부에서는 동물사육, 곧 소와 돼지를 잘 치는 노하우를 갖고있었으며, 정주가옥을 축조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잡곡 밭을 개간-경작하기 위한 농경도구들⁵⁵⁾도 아울러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레드만 교수가 말하는 중요한 문명지표 중 가장 기본적 두 요소들, 즉 농경과 정주촌락이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겠다.

주호인들이 육지의 다른 지역과 교역을 행하고 있었던 증거는 많다. 필자가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를 읽어본 소감에 의하면, 제주도 출토 유물들은 적갈색 토기들과 광령리 석기 유물들을 제외하고 거의 다 한반도 내륙에서 들여온 것들이었다. 필자는 그 수입 유물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대표적인 두 유적지 곧 제주시 山地港과 용담동 출토 유물 목록만을 간단하게 들어서 주호의 교역 증거로 삼겠다. 우선 산지항에서는 五銖錢 4매, 貨泉 11매, 大泉五十 2매, 貨布 1매 등, 총18매의 화폐들이 나왔다. 이것들은 기원후 1세기 경 화폐들로서 상품 거래용이라기보다는 威信財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⁵⁶⁾

필자는 그 古錢들이 威信財라는 점에서 古代世界나 前近代 사회에서

54) 이청규, 같은 책, 175-178쪽.

55) 이현해, 같은 책, 12-16쪽. 中期休耕: 청동기시대의 농경방법으로 1-10년 정도 休閑한 후에 2회 이상 수확하는 토지활용방식으로 면적당 수확빈도는 10-40%로 늘어난다. 개간할 삼림자원이 한계에 이르면 이전에 경작했던 땅을 삼림이 원상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경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땅을 묵히면서 순환 경작하는 「rotational blush fallow」체제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말기 이후, 청동기시대가 되면 잡곡이 본격적으로 재배되고 가축의 존재가 널리 확인된다. 곡물의 종류가 급증하여, 보리, 콩, 쌀, 조, 수수, 기장 등 다양한 곡물이 재배되고 개, 돼지, 소와 같은 가축이 사육되었다. 그런데 출토되는 유물들 중 수확구인 들갈은 크게 늘어나나 起耕具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돌로 만든 대패, 끌, 자귀 등 공구들은 양도 늘고 종류도 분화되면서 정교해진다. 같은 책, 75-92쪽에서 이런 유물도구들의 성격과 용도가 자세하게 분석되고 있다.

56) 이청규, 같은 책, 194-197쪽.

交易이 과연 어떤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행하여졌는지 그 성격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이것은 요즈음 한국 선사-고대 사회의 연구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역할이 강조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고대국가 형성-성립조차도 무기, 도구, 화폐 등의 철제품 도입-제작과 더불어 그 형성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대외 무역활동이 한국 고대사회 형성의 제일 요소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다.⁵⁷⁾ 그러나 이런 논점과 주장들은 상당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고대국가 형성이 환경, 기술, 경제, 군사, 지적, 종교적 요소들이 多變數가 되어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이란 매우 복잡한 과정-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한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품의 존재, 철제 자원 보유-사용 여부는 국가형성의 하급차원 변수들에 불과할 수도 있고, 반드시 그 사회의 문명 수준을 가름하는 지표가 될 수도 없다. 단지 철제품이라든지 몇몇의 위신재적 성격을 갖는 장식품들의 소유 역할을 갖고서 고대의 국가-사회라는 매우 복합 시스템의 수준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된다.⁵⁸⁾

이런 점과 함께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대 무역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졌으며, 한국 고대국가 초기무역이 전업화된 상인들에 의한 원거리 교역⁵⁹⁾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곧 고대무역은 互惠性의 원리에 따라서 주로 세 가지 유형의 무역들, 즉 1) 寄贈貿易(gift trade), 2) 管理貿易(administrated trade), 3) 市場貿易(market trade)으로 분류된다.⁶⁰⁾ 필자는 三國 성립 이전, 한반도 중·남부에 소재했다

57) 이런 경향은 필자가 알기로는 崔夢龍, 「韓國古代國家形成에 대한 一考察」(『金哲坡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3, 61-77쪽)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고대 사회에서 무역 기능이 강조되어 고대세계에서 여러 교역품이라든지 철기자원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언급이 증폭되었다. 예: 仁濟大學校 加耶文化研究所 編, 「加耶諸國의 鐵」(신서원, 1995); 仁濟大 加耶文化研究所 編, 「加耶諸國의 王權」(신서원, 1997); 이현혜, 「韓國 古代의 생산과 무역」(일조각, 1998) 등 다수가 있다.

58) 찰스 레드만, 같은 책, 336-409쪽. 문명이나 그 전제가 되는 국가발생에 관하여 여러 학술이론들이 비교적 자세히 비판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권력이란 사회조직력의 시각에서 초기국가의 진화를 연구한 책도 참고할 만하다: 하스(J. Haas) 지음·최몽룡 옮김, 『원시국가의 진화』(민음사, 1989).

59) 칼 플라나 위음·이종욱 옮김,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민음사, 1994, 161-163쪽). 지리적으로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원거리 무역은 별개의 제도였다. 그 구성원들은 별도의 사회집단을 형성했고 고도하게 체계화된 전문직 임무였으며, 특징적인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의미를 갖는 하나의 제도였다.

는 78국의 小國들이 관리무역이나 시장무역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수장들이 교환하는 선물교역 형태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교환물품들은 공동체의 용역과 물질적 수단을 동원하여 잉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威信財(또는 위세품, prestige goods)⁶¹⁾의 성격을 띠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호사회는 死者를 매장한 무덤을 남겼는데, 이것도 문명의 다른 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곧 제주도 용담동 龍潭洞 墳墓 遺蹟과 그 출토품들이다.⁶²⁾ 무덤 북쪽 묘역에 괘

- 60) 앞 책, 338-339쪽. 1) 기증무역: 이 경우 교역조직은 통상 의례적인 것으로 상호 중정, 사절단, 수장들 또는 제왕들 간의 정치적 교역을 포괄한다. 이때 재화는 보물, 즉 엘리트 간의 유통 대상물이다. 방문단들처럼 상하층의 겹겹 계층에서는 그 재화들이 보다 「서민적」인 것들일 수도 있다. 2) 관리무역: 이 무역 형태는 다소 공식적인 조약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 양쪽 모두에서 수입업자는 대체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무역은 정부가 통제하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출무역도 대체로 수입과 유사한 방식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3) 시장교역: 현대적인 교역형태이다. 시장가격의 기능은 수요와의 관련 하에 재화 공급을 통제하고, 유입될 수 있는 만큼의 공급에 관련하여 재화에 대한 수요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공급-수요-가격 메커니즘으로 불리어질 수 있다(같은 책, 448쪽). ...어떠한 사회제도도 완벽하게 이상과 일치하는 것일 수는 없으나, 자동조절 시장 체계는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 동안 이상적인 유형에 실질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존재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같은 책, 457).
- 61) 앞 책, 427-429쪽. 미개-고대사회에서 威勢(또는 威信)의 기능은 현대 경제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 위세란 그 고유의 합리적, 제도적 장치들을 지닌 독특한 문화 패턴으로 나타나며, 경제에 맞대어 재화와 인력의 열광적 이동을 촉발시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크와키텔의 포트래치(potlatch)예식처럼 재부를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트로브리엔더의 「교역게임」처럼 상호이익이 될 수도 있다. 트로브리엔더인들의 붉은 색 술라와 목걸이나 흰색 움말라 팔찌, 크와키텔의 구리로 된 접시, 또는 호머 시대 그리스의 철제, 동제, 금제의 술잔, 삼각대와 큰 술 그 어느 것이든 위세를 나타내는 재부는 그 외의 위세 대상들, 또는 명예나 권력 또는 안전등의 요소에 대해 적대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위세란 재부가 엘리트 사이에서만 순환됨을 뜻한다. 듀보아(Cora Dubois)는 그것을 지칭하여 위세경제(prestige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위세는 그 자체로서 재부의 축적을 동반할 수 있는 이 모든 활동의 대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았으면 쓸모 없었을 용역을 공동체 전체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방식들로 이용된 용역뿐 아니라 상당한 양의 물질적 수단을 동원시켜 주는 요인으로서도 간접적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초기 사회에서 위세란 요소가 잉여를 창출하는 기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용되지 않았을 용역과 물질적 수단을 그 공동체에 유용하도록 만든 영예로운 의무와 공적 수탁자 기능들은 곧 위세경제에서 얻어지는 위세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 62) 이청규, 같은 책, 152-156쪽. 이 유적은 남해안을 마주보는 제주도 북부 한가운데, 해안부터 직선 거리 500m 정도 떨어진 해발 30m 지점에 있다. 동쪽으로 200-400m 거리에 용담동 고인돌군을 비롯해서 괘지1식 토기를 내는 유물 산포지

지1식 토기 시기의 것으로 石槨墓 1기, 瓮棺묘(甕棺墓) 6기가 확인되고 있다.⁶³⁾ 그리고 북쪽 墓域의 石槨墓 副葬遺物로는 長劍2, 短劍 1, 활형 무기 1점, 鐵鋒 1점과 鐵斧 3점 등 철제무기가 나왔다.⁶⁴⁾ 이런 철제무기들도 무덤의 주인공이 고귀한 신분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威信財라고 생각된다.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용담동 분묘 6기의 瓮棺묘[독무덤]들이다. 이청규 교수의 말대로 이것들이 小兒用 무덤이라면 그 의미가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무덤에 귀중품인 위신재의 매장 정도는 바로 피장자의 지위와 재부의 지표가 된다. 이것은 일부 家系가 다른 가계보다 더 많은 재부를 통제하고 있었던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⁶⁵⁾ 더욱더 유아 무덤의 존재는 그 사회가 평등이 아닌 신분 서열에 따라 조직되어있던 그 조직성원들이 불평등하게 조직되어있던 계층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고귀한 사회적 신분이 그 자녀들에게 세습되어 그 지위가 어떤 가계에 고정되고 있었음을 말한다. 또한 사회가 매장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초기 농경사회에서 年長者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동시에 종교라 부를 수 있는 신앙체계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⁶⁶⁾ 이것도 그 사회계층과 세습지위를 사자 매장을 통하여 정당화시켰다는 증거가 된다. 여하튼 이런 지표들은 주호가 이미 수립-채집 생계경제를 극복하고, 新進化論者들이 말하는 首長(chiefdom) 지배하의 사회 단계에 도달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즐고⁶⁷⁾에서 이미 자세히 언급했으므로 여기서에서는 그 세부설명을 생략하겠다. 하여튼 기원후 1-2세기 주호사회는 사자를

가 밀집 분포되어 있다. 무덤은 동서 길이 18m, 남북 8m으로 한가운데에 동서로 길게 나 있는 石列이 있다. 북쪽으로 광지1식 토기시기의 것으로 石槨墓 1기, 瓮棺묘 6기가 확인되었다. 남쪽으로 공렬토기를 내는 석곽무덤이 3기가 있다.

63) 이청규, 같은 책, 152-154쪽. 瓮棺묘[독무덤]은 발견 당시 확인된 合口式 독무덤을 비롯하여 모두 6기가 출토되었다. 그는 이 독무덤들을 세골장(洗骨葬)을 한 成人의 무덤이 아니라 소아용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용담동 분묘를 우월한 지위에 있는 성인 被葬者의 石槨墓와 그와 혈연 등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아용 무덤이 안치된 家族墓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64) 이청규, 같은 책, 252쪽. 그는 용담동 석곽묘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무덤이며, 거기서 출토한 철기들이 우월한 신분을 무력적 권위로 상징했던 威信財(prestige goods)였다고 한다.

65) 찰스 레드만, 같은 책, 329-330.

66) 찰스 레드만, 같은 책, 242쪽.

67) 진영일, 같은 논문, 『탐라사 연구자료집1』, 344-346쪽.

매장하고 위신재를 부장한 문명단계에 들어가 있었던 사회였다고 하겠다.

필자는 앞서 인용한 용담동 북쪽 묘역 석곽묘에서 출토된 외래 수입 품으로서 부장유물들, 특히 철제무기류 일괄에 대해 좀더 언급하려고 한다. 이 유물들에 대하여 이청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특히 그 중에서 길이 84cm나 되는 철제 長劍 2점은 철제유물이 부장된 영남지역은 물론이고 일본 구주지방에서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 철제장검은 만주-한반도 지역에서 대동강 유역의 서북한 지역과 멀리 중국 길림성의 유수노하심(榆樹老河深)의 목관·목곽묘 유적에서 다량 발견된 바 있다.⁶⁸⁾ 또한 중국 하남성에서 다른 철제유물들과 함께 대량 제작된 것이 확인되고, 한반도에서는 그 발견 예가 드문 사실로 보아, 중국제품일 가능성이 있다.⁶⁹⁾ 그의 논점을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 비교해 보면, 주호의 대외관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尹龍九 교수는 한군현이 토착사회에 대한 지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반도 서북지방 漢郡縣의 토착지배 방식은 실제 직접 지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郡縣內 土着勢力이 갖는 사회적 규제력을 인정하면서 군현지배기구 속으로 편입, 토착사회의 자율적 지배구조를 매개로 하여 군현지배를 유지했다. 한군현은 그대가로 토착 수장층에게 각종 사치품과 漢式鐵劍들을 주었다.⁷⁰⁾ 그는 鐵製長劍에는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필자는 주호시대 용담동 분묘에 매장된 철제장검이 州胡首長들이 樂浪郡까지 가서 받아온 물품들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만을 지적하려고 한다. 고구려 문자왕 기록에 나왔듯이 탐라가 고구려에게 '珂'를 조공했던 사실도 이런 주호시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해외교역의 전통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는가 한

68) 이청규,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의 초기철기문화」, 1997, 14쪽. 또한 송호정, 「Ⅲ. 부여」(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 1997), 173-174쪽. 부여 중심지 길림성 중부 송화강 중류 일대에는 많은 漢代 유적과 유물, 즉 五銖錢, 청동거울, 明器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여 서쪽 南城子는 동단산과 그 부근 龍潭山을 가리킨다고 한다. 한식 철기유물이 나오는 제주시 龍潭洞과 기묘하게 일치하여 여기에 摘記한다.

69) 이청규, 앞 논문, 15쪽.

70) 尹龍九,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역사학회, 『歷史學報』 126집, 1990), 36-37쪽. 그는 철제장검을 주었다고 하지 않고 書刀用 環頭刀子와 사치품들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다. 우리가 오수전, 한식 철제 무기 등을 한반도나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한군현의 시각, 즉 주위 토착세력을 지배하기 위해 내려주는 물품들로서 이해한다면, 당시 한군현을 중심으로 하여 부여, 고구려, 삼한 등지까지 이르는 매우 광범위하게 교역 네트워크가 동북아시아에 깔려있지 않았나 한다. 주호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貿易 그물망의 한 매듭에 걸려있지 않았는가 한다.

레드만 교수는 문명형성의 조건들의 하나로 금속제련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구리로 만든 위신재를 지적하는 것이었으며 별로 강조하고 있지 않다.⁷¹⁾대신에 그는 교역, 농경도구 등의 기술 혁신, 도시혁명에 의한 사회조직의 변화, 신분 상징물, 표준화된 미술품 등을 역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필자도 문명이란 환경-기술-사회조직 등이 상호 작용하는 한 시스템이라고 입장에서 구리·철기제작 여부가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리, 철 등의 현지 생산-제작 여부가 문명의 필수-충분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금속도구들을 도입-사용했다는 것도 제작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⁷²⁾

주호시대나 그 이전에 제주도 자체에서 철기제작은 없었던 것 같고, 단지 철제품들은 한반도에서 다량 유입된 것들이었다. 즉 기원전 1세기경까지 소급될 수 있는 刀子片이 구좌읍 종달리 패총과 김녕리굴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기원후 1-2세기경 제주시 용담동 유적에서 長劍, 短劍, 철모(鐵鉢), 철착(鐵鑿), 철부(鐵斧), 철족(鐵鐵), 異形鐵器 등의 일괄 철제유물들 출토되고 있음은 전에도 몇 번 언급하였다.⁷³⁾여기에도 꼭지1식 토기 시기에서도 화살촉과 刀子가 간혹 출토된 바 있다고 한다.⁷⁴⁾ 이것들은 실용품이라기보다도 그 소유자의 위신을 표시하는 위신재에 불과했다는 것도 앞서 지적했다. 따라서 이 정도의

71) 찰스 레드만, 같은 책, 270쪽.

72) 찰스 레드만, 같은 책, 370쪽. 로버트 맥 에덤스는 초기 문명의 구조와 동인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을 피력하였다. 즉 초기 문명의 등장에서 환경과 기술의 중요한 전환은 사회조직의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기구의 변화가 선행되고 그 후에 기술, 생계, 그리고 기타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이론은 문명이란 환경, 기술, 인간, 사회조직 등의 구성인자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체계(system)이라는 줄리안 스텐어트의 견해를 발전시킨 것이다.

73) 이청규, 같은 책, 184-190쪽.

74) 이청규,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의 초기철기문화」, 14쪽.

위신재인 철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또 철제품 등의 제작이 반드시 문명의 선행조건이 아니라는 점들을 고려하면, 청동-철제품이 자체 생산이 안되었다는 것은 주호 또는 탐라국의 문명화 정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은 도대체 『삼국지』 편찬 당시 주호 인구가 얼마나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의 戶口에 관한 문헌 기록이라든지 그것을 추정할만한 고고학 자료들이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唐會要』에 제주도 戶口를 八千이라 하는 기록을 남겨놓았다(戶口有八千). 그 사료를 보도록 하자.

탐라는 무주 해상에 있으며, 섬 위에는 산이 있고 주위는 모두 바다에 접해있다. 북쪽으로는 백제와 5일 정도면 갈만하게 떨어져 있다. 왕은 성이 儒理이고 이름은 都羅이다. 성황(城隍: 성곽과 그것을 둘러싼 해자 垓字)은 없으며 다섯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집들은 등글게 담을 두르고 지붕을 풀로 덮었다. 호구는 8천이고, 文記가 없으나 활, 방패, 창이 있으며, 오로지 귀신을 섬긴다. 평상시 백제에 복속 되어있었고, 용삭 원년(文武王 1년, 661)에 朝貢使가 당나라에 이르렀다. (耽羅在新羅武州海上 居山島上 周迴並接於海 北去百濟 可五日程 其王姓儒理名都羅 無城隍 分作五部落 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 戶口八千 有弓刀楯稍 無文記 唯事鬼神 常役屬百濟 龍朔元年八月 朝貢使至, 『唐會要』卷100, 耽羅國條, 서기 961년에 편찬된 唐代的 정치-경제를 집성한 백과사전과 같은 문헌이다).

여기서 戶口가 戶數와 人口 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 지 애매하다. 그러나 필자는 제주도 인구가 고려 元宗 15년(1274)에 대략 1만 명, 조선 단종 2년(1454) 12,997명인 것을 감안하여 『唐會要』 戶口를 人口로 파악한 적이 있다.⁷⁵⁾ 만일 『당회요』가 10세기 중반 제주도 인구수를 어느 정도 제대로 전하고 있다면, 州胡 시기(3세기 후반)를 중심한 전후의 제주도 인구는 과연 어느 정도 되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진다.

전근대사회의 각지의 평균적 인구증가율을 연 0.1-0.2% 정도로 추정⁷⁶⁾한다면, 東夷傳 편찬 당시의 주호에는 약 4천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 인구 추정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1년

75) 진영일,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耽羅文化』 16, 1996: 『탐라사 연구자료집1』, 제 수록, 376쪽).

76) 이현해, 『한국 고대의 교역』, 31쪽.

0.1% 비율로 증가했고, 960년경에 제주도 인구가 8,000명 정도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960년경을 기점으로 하여 이로부터 약 700년 전에 동이전이 작성되었을 당시(서기 260년경), 제주인구: $8000 \times 700^2 \times 0.999 = 3971$ (명)이 된다. 이런 형식으로 계산하면, 500년 전 탐라가 백제 文周王에게 조공했을 때(서기 476년), 제주인구는 4851명이다. 그리고 960년부터 약 300년 후가 되는 元宗 15년(1274) 제주인구는 10,797명($8000 \times 300^2 \times 1.001$)이 된다. 960년 기점으로 약 500년 후인 조선 端宗 2년(1454)의 제주인구는 13,186명으로 계산된다. 앞에 인용한 자료들의 인구수와 거의 오차 없이 일치하고 있다. 만일 인구증가율을 연 0.2%로 잡으면, 500년 전(서기 460년경)에는 인구 2,940명($8000 \times 500^2 \times 0.998$), 700년 전(서기 260년경) 인구 1,970명이 되며, 300년 후(서기 1274년경) 인구 14,568명이 된다. 500년 후(서기 1454년경)에는 21,724명이 된다. 이러한 인구 변동폭과 자료상의 인구 수치를 비교해 보면, 제주인구 증가율을 약 0.1%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했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매우 낮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자료들에 나타나는 인구수치가 허구가 아니라 대충 제주도의 실제 인구를 반영하고 있었다는 확증이다. 따라서 『三國志』 東夷傳 편찬 당시(기원후 3세기 후반), 주호 인구는 약 4천명 정도가 되었다고 추정된다.⁷⁷⁾ 따라서 馬韓의 '大國萬餘家'(1家=5명으로 계산하면 5만 명 정도)이거나 '小國數千家'(1국 3천가로 셈하면 15,000명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小國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변진의 '小國六七百家'(3,500명 정도)의 小國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추정은 한갓 산수 셈에 불과하여 그 역사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⁷⁸⁾

77) 이 인구추정 계산은 제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김도현 교수가 한 것이다. 풀고 작성에 유용한 도움이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다.

78) 그러나 이런 산수는 아무런 역사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이런 숫자가 기재된 『삼국지』 三韓의 總戶數라든가 '大國萬餘家' '小國六七百家' '小國數千家' 등의 기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한은 三國 형성 전, 1-3세기에 걸치는 시기에 한반도에 소재했던 諸國을 의미했다는 것이 우리 학계의 통설이다(이현혜, 『三韓社會形成科程研究』, 일조각, 1984쪽, 132쪽). 이 시기에 馬韓은 50여 國으로 大國 萬餘家, 小國 數千家, 總戶數가 10여 만이고, 弁辰韓은 24개국으로 大國 4-5 千家, 小國 6-7 百家로서 총호수가 4-5萬戶 되었다 한다(『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馬韓: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弁辰韓: 合二十四

5. 탐라국이 백제에 方物을 바치다

주호사회는 교역을 통해 내륙의 선진문물을 도입하면서 그 생산력을 높이고, 잉여를 축적한 다음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로 비약해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인구추정에 의하면 5세기 후반 탐라국 인구는 약 5천명에 달했다고 생각된다.⁷⁹⁾ 이때 탐라국은 백제 文周王에게 방물을 바치고, 그 使者는 백제조정으로부터 은술(恩率) 벼슬을 받고 있었다(서기 476). 바로 이때가 탐라국은 '國'이란 호칭을 달고 우리역사 무대에 처음 등장한 때였다.⁸⁰⁾ 그리고 22년 후에 탐라가

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김정배 교수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삼한 78개국의 평균 인구수를 약 1만 명 정도로 계산했다(金貞培, 『韓國古代的 國家 起原과 形成』, 고려대출판부, 1986, 225쪽). 그러나 이런 산술은 그리 믿을 것이 못 된다. 즉 마한 조에서 한 가족수를 5명으로 잡고 小國 數千家를 최소한 3千家로 생각하면, 그 인구수는 15,000명 정도가 되며, 거기에서 50개국을 곱하면 적어도 750,000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총호수 10여 만 호의 인구수는 500,000명밖에 안 되어 大國 小國의 '家數'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총호수가 잘못되었거나 한 것이다. 또한 변진한 소국을 최소한 6百家(=3천명)로 잡으면, 24개국의 인구는 72,000명이 된다. 그런데 변진한 총4-5만 호의 인구는 최대가 25,000명 정도가 되어 양자 사이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된다. 이것은 마한의 大國 萬餘家, 진변한의 大國 4-5千家를 전혀 더하지 않는 숫자이다. 그리고 삼한은 大國이 萬餘家, 小國이 六七百家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양자 사이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 따라서 이것을 평균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가진 사료를 가지고 삼한 총호수를 78개국으로 나눠서 삼한 1국이 평균 1만 명이라는 계산은 통계상 별 의미가 없게 된다.

79) 찰스 레드만, 『문명의 발생』, 451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초기 왕조시대가 시작되기 까지 도시화는 인구가 5천-5만 명에 이르는 상이한 규모의 사원중심에 의해 이끌어졌다: Colin Renfrew, "Trade and Culture Process in European Prehistory, *Current Anthropology*, Vol. 10, 1969, p.158, 문명이란 다음 세 가지의 특징들, 즉 문자, 의례 또는 종교적 중심지들, 그리고 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취락들 중 적어도 두 가지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통상적 방식으로 사용된다: Colin Renfrew, "Trade as Action at a Distance: Questions of Integration and Communication", *Ancient Civilization and Trade*, ed. by J.A. Sabloff and C.C. Lamberg-Karlovsky(University of Mexico Press, 1975), p.14, 초기국가 구성단위는 분명히 제한된 규모-범위 내에 속한다. 빈번한 구성단위 영역은 인구 구성 단위들의 중심지 사이에 평균거리 약 40km를 가진 대개 1,500 km이다. 특별한 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은 그 거리를 약 20-100km 줄이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 필자는 제주도가 면적 1820 km²이고, 5세기 말경에는 5000명 인구를 가져서 최소한 문명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공을 바치지 않자 東城王이 친히 정벌을 나섰고, 탐라가 사절을 보내어 사죄하자 정벌을 그만 두었다 한다.⁸¹⁾ 그 후에 위덕왕 재위시, 隋가 陳을 평정하였을 때 戰船 한 척이 탐라에 표착하였다. 백제왕은 재물을 풍부하게 갖춰서 그 배를 본국에 귀환시키면서 아울러 사절을 보내어 陳 나라 평정을 축하하자, 위(魏) 高祖는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위덕왕 36년, 589).⁸²⁾ 이런 사실들이 백제와 탐라국에 관한 잔존한 역사기록 전부이다. 이것들은 단편적이고 영성한 기록들에 불과해서 이것들만 가지고 탐라국과 백제의 역사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탐라국의 역사적 영상을 잡아보도록 하자.

우선 백제, 특히 백제왕과 국내 신하들은 상호 어떤 권력관계가 문제가 된다. 바로 탐라가 조공하기 직전이 21대 개로왕(蓋鹵王, 재위: 455-475)인데, 그는 즉위 3년(475)에 유송으로부터 진동대장군을 除授(황제 또는 왕이 직접 관리에게 벼슬을 주는 일)받고 있다. 이듬해에 개로왕은 신하 11명의 관작을 요청하여 將軍號를 받았다. 이를 받은 11명의 귀족 가운데 8명이 부여씨 왕족이고 나머지 3명은 他姓 귀족이다. 8명의 왕족 가운데 征虜將軍左賢王 餘昆과 輔國將軍 餘都是 모두 왕의 아우인 끈지와 문주로 밝혀졌다. 또한 南濟로부터 그 신하들이 王·侯·太守 등의 작호를 제수받고 있는 東城王 대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것은 백제왕의 지위가 王·侯·太守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大王'으로 격상된 사실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⁸³⁾ 필자는 이에 백제왕은 중국 황제에 대해서는 한 諸侯로서 왕의 자격이었지만 백제 내부의 지배체계에서는 왕-후-태수를 거느리는 황제격의 大王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백제가 중국 황제에 대해서는 조공하고 책봉을 받는 제후이며, 국내적으로는 직접 지배할 수 없는 독자적인 지방세력들에게는 황제로서 군림하는 이중적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⁸⁴⁾

80)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三國史記』百濟本紀 文周王 2년 4월, 서기 476).

81)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耽羅即耽牟羅(백제본기 東城王 20년 8월, 498년).

82) 隋平陳 有一戰船 漂至耽牟羅國 其船得還經于國界 王貢送之甚厚 竝遣使奉表賀平陳 高祖善之(백제본기 威德王 36년, 589년).

83)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154-155쪽.

84) 李基東, 『百濟史研究』(일조각, 1996), 161-181쪽. 백제는 각종 제도, 사상, 종교

이런 '大王' 지위의 백제왕은 탐라국 使者에게 '恩率'을 내려주었다. 먼저 탐라 사절이 받은 恩率은 백제 16 官位 중에서 제3위에 속하는 고위 관직이었다.⁸⁵⁾ 이 경우 다른 관련 사료들에 보이는 耽羅王, 王子, 또는 佐平이란 작명(爵名)을 띤 외교사절들이 아니라, 단지 그 탐라 使者가 「은솔」의 작위를 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⁸⁶⁾ 그리고 '은솔'은 백제의 지방지배에서 郡將 임무를 맡고 있었다(『翰苑』 30, 百濟條: 「又有五方 若中夏之都督 方皆達率領之 每方管郡 多者至十小者六七 郡將皆恩率爲之 郡縣置道使 亦名城主」(『翰苑』: 7세기 전반 편찬 사서).⁸⁷⁾ 이 경우에 大王인 백제왕에게 조공한 탐라의 수장은 만일 그가 백제 관등을 받는다면 '은솔'보다는 몇 단계 높은 위계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달솔은 「又有五方 若中夏之都督 方皆達率領之」한다고 하여 '五方'의 方을 管領하는 지방관이었다. 더욱이 이 五方은 백제가 사비(泗水)로 천도한 이후에 성립된 方-郡-城 체제⁸⁸⁾이며, 탐라국이 백제에 사신을 보낸 웅진시대의 지방관제가 아니었다. 佐平은 물론 달솔보다 상위 관직으로 6좌평으로 분화되어있던 재무, 외교, 국방 등을 전담하였던 내부 행정체계의 책임자들이었다. 그러면 이 두 관직을 제외하면, 백제 지배체제에서 탐라국 수장의 위상은 왕, 후, 태수 중의

의례 등에서 황제국 체제를 갖춘 나라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백제는 周禮의 정치이념에 의하여 佐平, 5부, 六官 체제, 天地 제사, 四方主宰 사상 등이 실행되었다 한다. 한 마디로 백제는 天子 관제를 국내에 擬定하여 관료제도를 정비하고 국내외를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고 하였다 한다. 그리고 그는 특히 이런 「周禮」적 정치이념을 채택한 시기를 475년 백제가 漢城에서 熊津으로 천도한 직후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성이 고구려에게 함락 당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웅진 일대의 토착적 地域 割據性을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天下一統의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을까 한다(같은 책, 175-176). 필자는 바로 이때 탐라국이 조공해왔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 85) 盧泰敦, 「三國의 정치구조와 社會·經濟」(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981), 223쪽, 「표3」百濟官階組織: 1) 佐平, 2) 達率, 3) 恩率, 4) 德率, 5) 汗率(扞率), 6) 奈率(奈率)이라 하여 紫服을 입어 다른 신분과 구별하였다. 다음은 7) 將德, 8) 施德, 9) 固德, 10) 季德, 11) 對德이라 하여 緋服을 입었다. 그 다음으로 12) 文督, 13) 武督, 14) 佐軍, 15) 振武, 16) 剋虜가 있으며 靑服을 착용하였다.
- 86)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335쪽. 탐라 우두머리는 백제로부터 중전의 恩率 대신 좌평의 벼슬을 받았다고 하나, 그러나 이것은 탐라 우두머리(왕이든지 王子가 계수 받은 벼슬이 아니라 탐라 使者에게 내려준 것에 불과하였다고 필자는 여기에서 지적해 둔다.
- 87) 金壽泰, 「百濟의 地方統治와 道使」(『百濟의 中央과 地方』, 1997), 211쪽에서 재인용.
- 88)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일조각, 1988), 247 이하.

어느 하나에 비정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率'字가 붙는 관등은 백제가 部 체제가 성립하자 중앙귀족으로 전환하게 된 地方族長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원래 臣智나 邑借라는 國의 渠帥로서 지방지배자였다. 이처럼 지방귀족으로서 중앙귀족으로 전환된 세력을 率이라고 할 때 그 전환과정에서 세력이 큰 자, 예컨대 臣智 급의 세력가는 大率로 불리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세력 정도에 따라 상응되는 칭호로 불리었을 것이다(이들을 諸率이라고 해둔다).⁸⁹⁾ 또 이기동 교수는 백제의 관등체계에서 率字 계열이 차지하는 관등의 의미는 魏·晉 兩代의 '率善'官과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곧 지난날의 辰王에 대신하여 馬韓 지역의 최고 首長으로 등장한 백제국왕으로서는 종전의 '率善'官의 예에 따라 지역사회의 유력자들에게 率字 관등을 부여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리고 그것은 臣智나 邑借에 해당된다고 추측한다.⁹⁰⁾ 필자는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하여, 탐라국 사신이 은술을 받았다면 그 상위에 있는 탐라 수장은 臣智보다 상위, 곧 왕으로 불리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백제의 왕-후-태수의 爵號가 해외출병이라든지 해외 경영지의 경영에서 출발했음을 볼 때, 그리고 백제 측에서 보면 주호시대부터 자기들하고 관계가 깊고, 이제 정식으로 조공해온 탐라국을 백제의 장래 海外 經營地로 생각하여 탐라국 수장에게는 '王'의 작위를 허용하지 않았나 한다. 또한 실제 사료들에서도 탐라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표기하고 있다.(『唐書』 東夷列傳 145, 僂羅條: '龍朔初 有僂羅者 其王 儒理都羅 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龍朔初: 서기 661년: 耽羅王 遣佐平加羅 來獻方物(『日本書紀』, 持統 2년 8월, 서기 688년). 이런 기록들에서 탐라 수장은 바로 '王'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백제가 660년 망하여 그 관작 칭호에 간섭할 나라가 없어지자, 耽羅王은 백제를 대신하여 탐라국의 안전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 對象國으로 일본에 파견하는 使者들에게 적당하게 王子, 佐平의 작칭(爵稱)을 준 것이 아닌가 한다.⁹¹⁾ 백제

89) 노중국, 같은 책, 101-102쪽.

90) 이기동, 『백제사연구』, 190-191쪽.

91) 『日本書紀』에 의하면 탐라 王·王子·佐平 등이 다음처럼 나타난다. 耽羅始遣王子阿波伎貢獻(齊明 7년 5월, 서기 661); 耽羅遣佐平椽磨等貢獻(天智 6년 7월, 667); 耽羅遣

가 응진 천도한 5세기 후반 경부터 7세기 중반(백제: 660년 멸망)까지 王子라든지 佐平 작호를 띤 인물들이 탐라국 내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료들에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필자는 없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백제가 망하기 전에 백제의 재상인 좌평 관직을 자기들에게 조공하는 탐라국에 허락했을 이치가 없기 때문이었다. 탐라국의 王子·佐平 관작이란 단지 일본에 파견된 탐라국 사절이 自稱 自作의 虛職이었다고 생각된다.⁹²⁾

탐라국과 백제는 탐라국의 '貢物'(문주왕 때, '耽羅國獻方物' 또는 동성왕 때, '不修貢賦')을 바치는 것에 의해 양국의 외교관계가 맺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탐라국의 조공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탐라국의 자율권을 상실로 해석하여 백제의 일부 지방으로 떨어지는 「服屬」 관계로 이해하는 역사 이해 경향도 있다.⁹³⁾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사적 외교사상과 국제적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역사 파악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당시 동아시아 패자인 중국이 제시하고 규정한 국제관계로서 朝貢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면이 없으므로 두셋의 연구자의 말을 짧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우선 김한규(金翰奎) 교수는 秦漢帝國부터 중국이 주위 이민족을 통제하기 위해 朝貢制度, 冊封制度를 마련하여 소위 중국적 세계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한다⁹⁴⁾. 그에 의하면, 양자는 이질적인 별개의 제도들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王子久麻伎等貢獻(天智 8년 3월, 669); 耽羅遣王子久麻藝 都羅 宇麻等朝貢(天武 2년 閏6월, 672); 耽羅朝使王子久麻伎泊筑紫(天武 4년 8월, 675); 耽羅王姑如到羅波(天武 4년 9월, 675); 耽羅遣王子都羅朝貢(天武 6년 8월, 677); 耽羅王遣佐平加羅 來獻方物(持統 2년 8월, 688); 賜耽羅王子佐平等各有差(持統 7년 11월, 693).

- 92) 이청규, 같은 책, 328-337쪽. 耽羅王, 王子, 그리고 佐平이란 명칭을 갖고서 對內政治의 構造를 검토하고,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 논고 필자는 백제 멸망 이후, 그런 관작 소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단지 일본파견사절들의 작위명칭에 탐라사회의 내부정치구조와 계층성, 더욱이 시대를 구분할만한 그렇게 중대한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문주왕 대 조공의 대가로 받은 은술 벼슬은 제주도 대내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자체적인 통솔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다 하고 이청규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같은 책, 335쪽). 이것은 탐라국 사절이 받은 벼슬이었지 탐라국왕의 대내적 지배체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93) 진영일, 「고대탐라의 교역과 '國' 형성고」, 『탐라사 연구자료집1』 365-367쪽. 특히 日人 연구자들이 고대 제주도 연구에서 「服屬」을 탐라국의 자율권 상실과 백제 속국화란 도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앞 논문에서 비판하였다.
- 94) 金翰奎,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일조각, 1982), 109-110쪽.

것을 동반하는 표리관계의 동질적인 제도였다. ... 이것들이 간접적인 인민지배를 위해 고안된 제도였다면 다시 직접적·개별적 지배를 위해 邊郡體制를 마련하였다(같은 책 111쪽). ...그 기원에 관해서 朝貢制度는 원래 西周 시대 封建制度下의 諸侯가 周天子에게 朝覲과 貢物의 臣禮를 행하고 周天子는 이를 통해 제후들을 지배·통제하였던 일종의 정치적 지배수단이었다. 이것이 후에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외부로 확대·적용되게 되었다. 특히 秦漢 시대에 이르러는 이민족과의 관계에만 적용되었다⁹⁵⁾. 그리고 조공과 책봉에 관하여 일본인과 일부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 거의 정설처럼 영향을 미치는 日人の 학자의 중국 책봉체제에 관한 논문이 있다. 그에 의하면 조공제도는 책봉체제의 형식적 표현에 불과하고, 그 본질은 중국 왕조와 주변국가 관계를 규정하는 冊封體制에 있었다 한다. 이것은 황제를 정점으로 황제와 귀족·관료 간에 형성된 군신관계의 질서체계이었다⁹⁶⁾. 그것이 국내질서의 外延 부분으로 국제관계에 적용되어 중국왕조와 주변국가의 국제관계를 규정하게 되었다. 중국왕조는 책봉관계에 있는 주변국가에 대하여 臣節, 行禮 등을 요구하게 된다⁹⁷⁾. 그런데 그는 이런 중국과 주변국가 사이에 설정된 책봉체제를 중국 대신에 일본을 국제관계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백제와 신라 사이에 적용하고 있다. 그 증거라는 것이 단지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하였다는 『日本書紀』 기사를 들고 있다⁹⁸⁾. 계속하여 그는 양국 사자가 와서 공물을 바치면 이것을 일본에게 服屬한 증거로 삼고, 따라서 일본은 이 두 나라에 대한 宗主權을 갖고 있었다는 방식의 주장을 하고있다. 일인 학자들은 대개 이런 조공이나 책봉체제를 갖고 일본이 자기 영역은 물론하고 고대 한반도에 대해서도 패권을 잡고 있던 一大帝國이란 증거로 삼고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체적으로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지배했다는 이론적·실증적 증거들이 없으며, 당시의 상황과 세력관계는 그와는 정반대가 아니었을까 한다.⁹⁹⁾

95) 앞 책, 111-114쪽.

96)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6-8世紀の東アジア」(岩波講座, 『日本歴史』卷2, 古代 2, 1962., 231-278쪽.

97) 앞 책, 275-276쪽.

98) 앞 책, 271-274쪽.

조공제도에 대해 종합적이고 문화적 견해를 피력한 페어뱅크 교수가 있다. 즉 조공제도란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儒敎的' 세계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宗屬 관계였다. 그것은 使臣의 교환과 외교관계의 관리, 주민의 본국송환과 도망자 인도, 중국 대 외국의 통상규제, 그리고 타부족과 통치자들을 협박하고 감언으로 현혹하고 보조함으로써 自衛하려는 특별한 중국적 노력의 모든 양상을 총괄하는 것이었다¹⁰⁰⁾.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 문화적 원천이고 주위 諸民族은 조공을 통해서만 모든 문화의 원천인 중국에 접촉할 수 있다는 文化主義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고 한다. 물론 외국 군주들은 이런 중국적 국제질서에 참여함으로써 중국과의 교역,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국내외적 질서를 유지하여 자기 정권의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필자는 조공에 관해서는 문화주의적 관점에 편을 들고싶다. 이런 시점에서는 탐라국이 백제에게 조공하였다고 해서 곧 그것이 탐라국이 자주권을 잃고 백제의 속국이 되었다고 한 일인 학자들의 단정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게된다. 오히려 그것은 탐라국이 백제의 첨단 문물·제도·지식을 수입하든지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외부 침입을 미연이 방지하고, 내부적 문화밀도를 높이려는 적극적 '國'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탐라국이 백제에 대한 조공은 해외정세 파악과 외부 침입 방지, 그리고 첨단문물의 수입이란 목적을 갖고 수행된 것 같다.

그러나 백제에 조공하고 백제의 선진문물을 수입하는 오랜 과정에서 탐라는 자연스럽게 백제의 각종 제도, 문화 영역 등에서 그 막강한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¹⁰¹⁾ 그리고 그런 사실은 실제로 백제에 의해

99) 진영일, 같은 논문(1994), 365-366쪽, 간단하게나마 고대일본이 탐라국, 백제와 신라에 대해 가졌던 역사적 허상에 관해 지적했다.

100) 에드윈 O. 라이샤워·존 K. 페어뱅크 共著, 『東洋文化史』(乙酉文化社, 1964), 399-402쪽: 이 조공제도에 관한 부분은 페어뱅크가 집필한 것이다.

101) 『唐會要』卷100 耽羅國條: 「無城隍 分作五部落」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백제가 서울을 上部·中部·下部·後部の 五部로 나누고 각 部를 다시 5巷으로 나누는 체제하고도 비슷하다. 여기서 필자는 5部落이 제주도 전체를 5개 부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었고 현재 제주도 일대를 5개 지역으로 분할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구가 8천이나 되고 1,820 km² 되는 섬을 단지 다섯 개 부락으로만 나눈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게 되면 한 부락이 16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8세기 경에 작성된 西原京 부근의 4개 촌락문서에서 한 촌락 당, 평균 110명이라는 인구수와 너무도 차이가 난다(김철준, 新羅의 村落과 農民生活,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981, 109-121쪽). 그래서 현재 제주도 일대를 5개 부락으로 구획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城

중국에 대한 외교권도 간섭받고 있었다.¹⁰²⁾ 필자는 그런 영향들의 하나가 바로 탐라국의 백제 담로(檀魯) 제도의 채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국 史書(『梁書』百濟傳)에 ‘號所治曰固麻 謂邑曰檀魯 如中國之言郡縣也 其國有二十二檀魯 皆以子弟宗族’이라고 담로에 관해 전한다. 이 담로에 관하여 俞元載의 논문이 있다¹⁰³⁾. 그의 견해에 의하면, 왕이 거처하는 성을 ‘固麻’라 하고, 읍을 담로라고 하였다. 이곳의 담로는 바로 왕성을 제외한 지방의 행정성인 「지방의 治城」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담로를 중국의 행정단위인 郡과 縣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도성, 왕성을 제외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지방의 治城」을 바로 ‘담로’라고 해석하고자 한다¹⁰⁴⁾. 그는 그 語源에 관해서는 담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담으로 두른 땅’이라고 하는 古代語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담’이 보다 확대된 것이 바로 ‘성’(담으로 두른 땅)이다. 아마도 ‘탐라’(제주도)도 이런 어원에서 비롯된 하나의 예라고 판단된다. … 담로는 『梁書』百濟傳에 기록되었다 하여 梁代나 어떤 시기에 한정되어 실시된 지방제도가 아니라, 백제의 전 시기를 통한 고유의 통치방식인 「지방의 治城」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지방 지배방식이었다 … 백제초기부터 지방통치방법은 지방의 거점 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방식이고 백제의 전신인 마한 54개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⁵⁾. 그리고 사비시대에 이르러 영토에 대한 효율성적 지배를 위하여 「지방의 治城」을 보다 조직적으로 개편한 것이 方-郡-城의 제도였다¹⁰⁶⁾. 또한 담로에는 ‘子弟宗族’이 파견되었다 하여 왕족이나 왕의 근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4세기 이후부터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집권력의 강화 정도에 따라서는 왕족 말고도 대성귀족도 파견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

陸(城과 그것을 두르는 해자 壕字)이 없다는 것은 제주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적대적인 세력이 없는 특수한 조건에서 그러한 방어시설을 갖출 필요가 아예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활, 칼, 창, 방패 등의 무기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최소한 자체방어를 위한 조직 정도는 갖추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102) 백제 위덕왕 때에 중국 전함의 탐모라에 표류하자 백제왕이 수나라에 이를 돌려 보내고 있다(『三國史記』百濟本紀 威德王 36년, 589).

103) 俞元載, 『梁書』百濟傳의 담로(『백제의 중앙과 지방』, 1997, 91-120쪽).

104) 앞 논문, 102쪽.

105) 앞 논문, 103-106쪽.

106) 앞 논문, 111쪽.

다¹⁰⁷⁾.

상술한 담로 해석에는 많은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다¹⁰⁸⁾. 그러나 대체로 백제의 독특한 지방지배 방식이었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여기에서 탐라국하고 담로를 연관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담로」와 「耽羅」라는 지명 발음이 너무 유사하고, 「탐라」 명칭이 바로 백제 웅진시대에 처음 역사서에 출현하여 그 상관성이 한층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호시기부터 백제지역과 서로 교통과 교역이 있었던 本島人들은 백제에 조공하면서 그들의 지방제도를 견문하여 백제 王城에 대해 자기지역을 「담로」 혹은 「탐라」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담로에는 왕족이나 대성귀족들이 파견되었으므로 탐라 지배층은 백제의 왕족과 더불어 어떤 가족적 혈연적 관계가 있었다든지 또는 擬制的 혈연 관계를 맺었던지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맺음말

『三國志』·『三國史記』에 기재된 매우 빈약한 탐라 기사를 두고 필자는 너무 많은 상상을 한 것 같다. 이것은 그만큼 억지 논리와 추측을 많이 하였다는 말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영세한 고대사료를 놓고 어떠한 제주고대사를 한번 복원하고 그 이미지를 잡아보고 싶었고, 한편으로 제주고대에 관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일단 정리해 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다. 하여튼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이전 소재 주호가 과연 제주도를 가리킨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주호 기사가 동이전 韓條 끝에 소재되어 있고, 마한의 위치가 한반도 中南部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문화전파론(文化傳播論)의 문제점 등을 들어서 주호가 제주도를 지칭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107) 앞 논문, 111쪽. 이도학 씨의 발언.

108) 앞 책, 115-120쪽에서 指定討論者들의 발언 내용.

(2) 州胡인들이 배를 타고 왕래했던 '中韓'의 위치를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영산강 유역 남부 해안지역이라고 비정하였다. 그리고 3-6세기까지 용관묘가 축조되는 등,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세력, 곧 신미국(新彌國)이 대표하는 20여 國의 소국연맹체가 中韓이 아니었는가 추측하였다.

(3) 당시 중국을 비롯하여 백제, 일본 등이 대형선박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간 기착지 없이 황해를 횡단할 수 있었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주호는 백제, 일본, 그리고 중국의 무역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들 나라들과도 직접 교역이 있을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았다. 그것이 바로 기원후 1세기 경에 이미 철제유물들이 본도에 일괄 수입되고 있었고, 따라서 3세기 말경 주호도 中韓에 왕래하면서 교역하였다는 기록들로써 방증될 수 있다고 하였다.

(4) 『삼국지』 저자는 주호인들이 소와 돼지를 잘 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호사회가 수렵-채집이라는 생계경제를 벗어나 동물사육이라는 문명조건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밖에도 적갈색토기, 광지1식 토기의 존재도 바로 문명의 최초 단계에 이른 증거이며, 더욱이 수확-건축용 도구 등의 유물들은 이미 주호가 잡곡농경 단계에 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보아도 주호인들은 잡곡농경, 정주촌락, 농경도구, 토기, 동물사육 등을 갖추어 문명형성의 조건들을 여러 점들에서 충족하고 있었다. 이것은 3세기 후반 경에는 주호가 원시평등사회를 벗어나고 적어도 首長制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5) 주호보다 2-3세기 전에 이미 한반도를 비롯하여 주위 나라와 교역관계가 있었다는 근거가 산지향 출토의 화폐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적 무역이 아니라 수장들 사이에 행해지는 기증무역(寄贈貿易)의 성격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시 용담동의 일괄 철제유물들은 실용품이 아니라 수장의 권위를 표시-상징하는 威信財임을 지적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6) 『唐書要』 耽羅의 '戶口八千'을 근거로 하여 0.1%라는 전근대 사회의 인구증가율을 참작하여 3세기 후반 경의 주호인구가 약 4천명이 되었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이런 증가율을 적용한 수치가 고려 원종 대와 조선 단종 대의 기록과 거의 들어맞고 있었다.

(7) 탐라국은 백제 문주왕과 동성왕에게 貢物을 바치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공물의 성격을 구명해서 그것은 탐라국의 자율권 상실이라 아니라 당시 중국적 질서의 한 표현이었으며, 또한 동아시아의 한 국제관행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했다.

(8) 백제왕은 '大王'으로 당시 생각되고 있어 그 밑에는 王-侯-太守라는 작호(爵號)를 가진 신하들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탐라국 수장은 王號를 띠고 있지 않았는가를 추측하고 실제가 그러하였던 사료를 들어서 확인하였다. 또한 백제와 오랜 외교관계로 인하여 백제의 여러 정치-문화적 영향이 탐라사회에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당회요』에 탐라국 서울[제주시]가 백제 도움 고마성처럼 5部, 곧 5部落에 의하여 구획된 것도 그 증거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리고 백제의 지방 지배 거점이었던 '담로'도 백제와 탐라 사이에 있었던 오랜 문물 교역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일개 담로로 간주되게 되면서 자연히 제주도의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지 않았나 추정해 보았다.

이런 주장과 견해는 문헌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탐라고대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필자의 잠정적 결론에 불과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보다 나은 합리적 설명도식이 하루 빨리 나와서 본고의 논점들을 수정시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이 글을 마치겠다.